

의안번호	제616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
촉구 건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6월 24일

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61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4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주문

-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위한 4개 시·도 연합조직의 기구 및 정원을 신속히 원안대로 승인
- 초광역 도로 및 철도 교통, 첨단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국가위임사무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에 적극 협조
-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,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 협조

제안이유

-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(충북, 충남, 세종, 대전)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'충청지방정부연합' 설치를 위한 규약안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
- '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'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므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.

붙임 : 건의안

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

보낼 곳 : 대통령, 국회의장, 국무총리, 행정안전부장관

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

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은 국토의 11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체 인구의 50.6%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. 이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,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방소멸과 국가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나타낸 지표로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강조되는 이유이다.

전국 228개 시군구 중 52%인 118곳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.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중 8곳,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12곳, 대전은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, 세종은 전체 면 지역이 소멸 단계에 놓여있다.

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,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(충청북도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)는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'충청지방정부연합'을 설치하기로 협의하고,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쳐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.

하지만, 행정안전부는 규약 승인 시 명칭에 '지방정부'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.

이에 따라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,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·재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을 의미하며,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확실한 중대한 사안이다.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며,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.

하나,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위한 4개 시·도 연합조직의 기구 및 정원을 신속히 원안대로 승인하라

하나, 초광역 도로 및 철도 교통, 첨단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국가위임사무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골에 적극 협조하라

하나,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,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 협조하라

2024. 6. 24.

충 청 북 도 의 회